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

# 모의 논술고사 해설지 (인문계열)

---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 1. 출제 의도

###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 2. 각 제시문의 출처와 내용 소개

[가] 이 제시문은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쓴 『실천윤리학』의 2장 ‘평등과 그 함축’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싱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통용되고 있지만, 이 원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인종, 성별,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원칙의 윤리적인 근거에 대한 탐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성, 인격, 합리적 사유 능력 등 여러 자연적이고 사실(fact)적 기초들은 분명히 개인에 있어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적 조건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그는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고려를 받아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윤리적 원칙으로 제시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에서 평등의 근거를 찾는다.

[나] 이 제시문은 어니스트 톰슨 시튼(Ernest Thompson Seton)의 『인디언의 복음』에 나오는 한 일화이다. 이 일화에서 양파를 파는 노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파를 팔기 위해서만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의 자연 환경을 관찰하고 즐기는 등 장사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을 누리기 위해 시장터에 나오는 것이다. 시튼은 이 일화를 통해 삶에는 돈벌이 외에도 금전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탐욕과 물질주의를 비판했다.

[다] 이 제시문은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불평등의 재검토』와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두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영국에서 벌어진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이나 라는 논쟁에서 센은

역량 접근법을 도입하여 빈곤을 역량의 박탈이라고 정의하였다. 소득의 빈곤이나 불평등뿐만 아니라 권리나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 박탈, 사회가 제공하는 기초적 교육, 보건의료, 복지의 결핍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이 절대적 궁핍을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시문에서는 소득이 좀 더 있지만 비싼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그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심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빈곤의 상대성과 절대성은 단순한 의미론적 논쟁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현실적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센은 빈곤을 금전적 기준 하나로만 규정하는 것보다 다차원적인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이 제시문은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에 나오는 내용의 번역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를 추구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선비, 벼슬아치, 장사꾼, 병사, 사냥꾼, 의사, 농공상인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위가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상관없이 그 목적은 모두 부를 얻고 지키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어진 사람이 신의를 지키고 절개에 죽는 것이나 벼슬아치가 문서를 위조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나 모두 그 귀착점은 ‘부(富)’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사마천은 부를 얻고 싶어 하는 것,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문항 설명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가]의 내용 요약

두 사람이 지닌 능력의 차이가 그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 차이를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적이거나 가상적인 기준을 근거로 평등을 논의할 수 없다. 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이익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특정인의 고통이 더 좋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이익 평등 원칙은 이 경우 더 분명하다.

2. 제시문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다]이다. [가]는 평등을 주장할 때 개개인이 가진 사정, 능력이나 처지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윤리적 원칙에 불과할 뿐 합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평가함으로써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제시문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불편부당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그 기준은 다양해서는 안 되며,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시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제시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나]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을 즐기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익’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다]는 빈곤의 원인과 직접적 측정을 위해서는 소득 위주의 통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역량의 결핍 등 소득으로 담아낼 수 없는 요소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와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나]에서 노인은 주변 사람들과 인생을 나누고 자연을 즐기는 등 금전적인 가치나 이익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양할 수 있다고 보는 노인의 관점을 고려하자면, 제시문 [나]의 핵심 요지는 사람들의 평등을 평가할 때 ‘이익’이라는 단일한 가치로 환원해야 한다는 제시문 [가]의 관점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2-2.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다]는 빈곤의 정도 차이가 역량의 결핍 혹은 박탈 정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역량은 금전이나 소득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가]의 견해와는 다른 관점이다. 한 가지 예로서, 교육은 취업을 통해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인데, 요즘 교육은 온라인이나 화상수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는 사회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접근성에 의해 많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량이란 변화하는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상대적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한 가지 기준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면에서 [가]와 반대된다.

**【문제 2】**

아래 그림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시간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굵은 실선은 여성이 모든 시간을 가정에 투입하는 경우 창출하는 가치를 의미하고, 긴 파선(---)은 남성의 임금률을, 긴 파선과 점선(-·-·-)은 여성의 임금률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고 전 생애에 걸친 여성의 시간 가치를 남성의 시간가치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 이 문제는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1. 개요

본 문제는 그림을 올바르게 읽고서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학생들이 그림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생에 걸친 시간가치를 비교하여 논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2. 해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노동시장에서 사용하는데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버는 소득을 임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률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노동시장에 투입하였을 때 창출하는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한 자녀양육이라든지, 요리, 청소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밖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이러한 활동을 가구생산(home produc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한 시간과 달리 가정에서 일한 시간은 소득을 높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품행이 바른 자녀라든가 근사한 식사와 같은 가구생산의 최종 생산물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대신에 이를 소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그림의 굵은 실선은 여성이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동안 자신의 시간을 가정에 투입하는 경우 창출하는 가구생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처럼 그림에서는 이러한 가구생산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렇듯 가구생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여성은 자신의 시간을 보다 생산적인 활동, 다시 말하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사용할 것이다. 그림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이  $t_1$ 부터  $t_2$  사이에 있는 기간에는 자신의 시간을 모두 가정에 투입했을 때 창출하는 가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창출하는 가치보다 높다. 따라서 그림에 표현된 여성은  $t_1$  이전과  $t_2$  이후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을 받고,  $t_1$ 부터  $t_2$ 까지의 시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에서 가구생산에 전념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림에는 남성의 경우 임금률 곡선만 주어져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남성의 경우 평생 동안 노동시장에 자신의 시간을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임금률이 여성의 임금률보다 높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연령이  $t_3$ 부터  $t_4$ 에 이르는 시기에는 여성이 가정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창출하는 가치보다 높다.

그런데 여성은  $t_1$ 부터  $t_2$ 까지의 시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모든 시간을 가정에 투입하는 선택을 할 것이므로 이 그림은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창출하는 시간의 가치가 결코 남성보다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답안 예시

합리적인 여성은 자신의 시간을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사용할 것이다. 여성의 연령이  $t_1$ 부터  $t_2$ 까지의 기간에는 자신의 시간을 모두 가정에 투입했을 때 창출하는 가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창출하는 가치인 임금률보다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에서 가구생산에 전념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남성의 임금률이 여성의 임금률보다 높지만 여성의 연령이  $t_3$ 부터  $t_4$ 에 이르는 시기에는 여성이 가정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창출하는 가치보다 높다. 여성은  $t_1$ 부터  $t_2$ 까지의 시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에 모든 시간을 투입하는 선택을 할 것이므로 이 그림은 전 생애에 걸친 여성의 시간가치가 남성의 시간가치와 비교하여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이 문제는 주어진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오직 제시문의 논거만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1. 개요

<보기>의 글은, 제시문의 앞부분에서 “천하의 일 중에 빈천과 부귀를 가지고 그 높고 낮음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문장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은 곧 천하의 온갖 일 가운데 문장만은 빈천이나 부귀로 그 가치가 매겨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장은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그 뒷부분의 내용에서 보듯, 누구나 그 훌륭함을 알 수 있고 그 자체로 빛날 수가 있다. 또한 부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훌륭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도 뛰어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이 논술에 제시된 여타 제시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한다면, 빈천이나 부귀 등 소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함을 피력하는 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글의 주제에 찬성하려면, 제시문들 가운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나]와 [다]의 논거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란 없다고 주장하는 [가]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거꾸로 <보기> 글의 주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가]와 [라]의 논거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나]와 [다]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나아가 <보기> 글의 주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제시문의 논거들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내용을 단순 나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요구사항, 즉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저자의 뜻이 설득력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야 한다.

## 2. 제시문의 논거 활용

### 1)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에 찬성하는 입장

[가] 이 제시문은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이익 추구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평가 받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다양할 수 없고 하나로 환원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익은 돈이라는 경제적인 가치와 불가분한 관계이다. 하지만 이 제시문은 평등이라는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상정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모든 가치들을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바꾸려 시도한다. 우선 평등의 원리가 당연한 것인지도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시문이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보기> 글의 주장처럼 예술적 가치, 혹은 학문 등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예는 많다. 게다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까지도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역사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가] 제시문은 이득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설명할 수 없다.

[나] 제시문 [나]에서 양파를 파는 노인은 단순히 자신의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삶에 대해 대화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노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제시문 [나]의 핵심 요지는 ‘돈’이나 ‘이익’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하며 심지어 그 가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포기하고 다양한 체험을 위해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그보다는 이익이 낮을 지라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보기> 글의 주장처럼 예술적 가치나 명예를 추구하여 이익을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으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회에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역량 접근법은 금전으로 가치가 매겨질 수 없는 요소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기> 글의 주제를 찬성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말하자면 뛰어난 문장이 부귀로서 가치가 매겨질 수 없듯이 결핍된 궁핍의 상태도 금전적 결핍 이외에 다른 다양한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불평등하게 분배된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는 상대적인 역량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라] 제시문 [라]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제시문 [라]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신의를 지켜 절개에 죽는 것이 부귀로 귀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는 존경이나 흠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이익을 추구하고 부유해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문장을 쓰는 행위의 결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문장을 쓰는 동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2)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에 반대하는 입장

[가] 제시문은 ‘이익에 대한 고려’라는 경제적인 가치로 모든 사실적인 기준과 가상의 기준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 내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때 각자가 자신의 생각만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하나의 사회는 하나로 존재할 수 없다. 사회의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을 조정해야 하고, 이때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서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는 제시문이 제안하는 경제적인 가치 혹은 돈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가치들을 하나로 환원하여 공평하게 측정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글이 제안하는 관점처럼 돈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상이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므로 그 경우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나] 제시문 [나]에서 노인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등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제시문 [나]의 관점은 부귀나 권세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문장을 짓는 것을 추구하는 <보기>의 글의 관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 주제는 바로 ‘돈’이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노인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양파를 팔아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물건을 사고팔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일단 ‘돈’을 벌고 자신의 재생산을 위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돈’이나 이익추구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 정책적 활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역량 접근법이라는 추상적 이론을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역량이라는 개념도 그 활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동일 가치로 환산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기> 글의 독보적 가치를 가진 훌륭한 문장도 그 훌륭함이 널리 공인되도록 하자면 객관적이고 단일한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맥락에서 반대의 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제시문 [라]는 부라는 것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부귀'로 귀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 글에서는 문장이 빈부, 귀천과 관계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는 그 문장을 쓴 사람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에, 문장의 가치는 곧 그 문장을 쓴 문장가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난 문장이란 바로 문장가에 대한 평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문장가의 행위 또한 빈부나 귀천 등 이익 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결과물인 문장 역시 부나 이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4. 문제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유의 사항>

- 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 1) 제시문 [가] 요약: 30점

- 30점 - 2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 10점: [나]와 [다]를 모두 찾은 경우.
- 5점: 하나만 찾은 경우.
- 0점: 둘 다 못 찾은 경우.

####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60점

- 60점 - 5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 50점 - 4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 40점 - 31점: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점 - 2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 2】

아래 그림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시간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굵은 실선은 여성이 모든 시간을 가정에 투입하는 경우 창출하는 가치를 의미하고, 긴 파선(---)은 남성의 임금률을, 긴 파선과 점선(-·-·-)은 여성의 임금률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고 전 생애에 걸친 여성의 시간가치를 남성의 시간가치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유의 사항>

- 전체 100점 중 아래의 1)~4)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정한다.

1) 임금이 노동시장에 투입한 시간가치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 20점(만점)

- 20점 - 11점: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노동시장에 투입한 시간가치로 설명한 경우
- 10점 - 0점: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노동시장에 투입한 시간가치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2)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시간을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할 것이라고 추론했는가? : 30점(만점)

- 30점 - 16점: 여성이 t1 이전과 t2 이후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임금을 받고, t1부터 t2까지의 시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에서 가구생산에 전념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추론한 경우
- 15점 - 0점: 이러한 추론을 하지 못한 경우

3) 여성의 연령이 t3부터 t4에 이르는 시기에는 여성이 가정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창출하는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 20점(만점)

- 20점 - 11점: 그림을 올바르게 읽어서 이를 추론한 경우
- 10점 - 0점: 이러한 추론을 하지 못한 경우

4) 결론적으로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창출하는 시간의 가치가 결코 남성보다 낮지 않다고 추론했는가? : 30점(만점)

- 30점 - 16점: 그림을 올바르게 읽어서 이를 추론한 경우
- 15점 - 0점: 이러한 추론을 하지 못한 경우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유의 사항>

- 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1)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30점**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2)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50점**

- 50점 - 4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40점 - 3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3)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20점**

- 20점 - 11점: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 10점 - 0점: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